전준미 신임 황산면장, 경로당 방문 주민소통 시작

김제시 황산면에 새로 부임한 전준미 면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지역 내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소통행정을 펼쳤다.

전준미 면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르신들께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고자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 폭염과 집중호우 예방을 위한 경로당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이용수칙을 홍보했다.

또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시정홍보를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부임 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먼저 노인들을 찾아주며 세심하게 살펴주는 전준미 면장님에게 너무 감사하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황산면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준미 면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힘든 여름이지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면정에 반영해 더욱 살기 좋은 황산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 =곽노태 기자

진안군-세종시, 청소년역사문화교류 캠프 실시

진안군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안군-세종시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캠프를 실시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농촌-도시 청소년 지역교류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됐다.

교류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음악적 예술성이 뛰어난 전라좌도 풍물굿인 중평굿 농악 체험활동 및 소원등 만들기, 역사박물관 체험활동 등에 참여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잊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온실 및 원예식물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영농기술을 체험하며 농촌지역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험하고, 진안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진안청자공예공방을 방문하여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이산 타포니지형과 마이산 일원의 이산묘, 금당사, 탑사, 은수사를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백산면 주민자치위, '내 고장 바로알기' 추진

김제시 백산면(면장 이태우)은 지난 22일 주민자치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백산면 주민자치위원, 마을이장, 사회단체장 등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산단 및 관내 주요 문화관광지를 찾는 '내 고장 바로알기'를 추진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지평선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백산면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석정 이정직 선생 생가 및 백산서원 등 주요 역사문화 관광지를 찾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애향심을 제고하기도 했다.

또한 서김제다육식물원을 방문하여 직접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강복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에게 백산면의 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소개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돼 만족스럽다""며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 쌀 지키기 88릴레이 챌린지' 동참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농업인 위해 참여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지난 22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추진 중인 '전북 쌀 지키기 88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쌀미(米)'를 쪼개면 팔십팔(八十八)로 볍씨를 뿌리고 밥이 되어 사람 입에 들어가기 까지 농부의 손을 88번 거친다'는 의미로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는 취지에서 지난 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포문을 열은 후 전북 기관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재고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80kg 기준 18만 원 이하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해 금년도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농협은 전북도와 함께 쌀 산업기반 유지와 농업소득 지지를 위해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비롯해 범 도민 대상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운동 등을 전개하며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온정이 회장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서 감사하다"면서 "구매한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까지 할 수 있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챌린지 동참 후 쌀 3,000kg을 구매해 도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에 전부 기부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김윤상기자

김제시, 문체부 장관기 전국 중고 하키대회·5인제 대회 개막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고 하키대회와 5인제 하키대회가 김제에서 개막하고 7월 22일 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33개 팀 500여명의 선수가 김제를 찾아 열띤 승부에 돌입 했다.

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하고 김제시하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국대회는 중등부 11개팀, 고등부 16개팀이 참여한 전국 중고 하키대회와, 중등부 6개팀이 참여한 5인제 하키대회로 구성되며 30여 팀이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고 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하키대회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전국의 명문 하키부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키 경기의 재미와 열정을 생중계하고 있다.

김제시는 스포츠 마케팅 전담부서를 꾸리고, 관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큰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참가선수들은 물론 가족단위 참가가 가능한 유소년

전국 대회를 집중 유치하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해 오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 여파가 불러온 경기참체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김제시는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텃밭할매 마음나눔냉장고 공동체 문화 확산 기여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해 시작한 '텃밭할매 마음나눔냉장고'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후원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상서면 우슬재황토촌 라현환 대표가 유정란 140박스(4,200개)를 텃밭할매 마음나눔냉장고에 기부했다.

라현환 대표는"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이번 기부분은 유정란을 나눔냉장고에 채워넣고, 일부는 고령자친화기업 마실밥상 협동조합에서 계란찜, 계란말이, 김밥 등의 음식으로 만들어 거동불편 재가노인 100명과, 결식아동 50명에게 도시락 반찬으로 전달했다.

최현호 부안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장은 "사업초기에는 지역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독려했는데 지금은 일반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가 많이 늘었다"며 "나눔냉장고는 음식 뿐만 아니라 이웃간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어 가고 있다"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덕진동 자생단체 연합회, 취약계층에 삼계탕 전달

전주시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장귀)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성귀남), 통우회(회장 문기영)와 함께 지난 21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300여 인분을 전달했다.

이들 자생단체 회원들은 이날 무더위에 지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삼계탕을 직접 조리해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 성귀남 회장은 "다가올 무더위에 삼계탕으로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예은교회, 예수병원 발전기금 1500만원 기탁

예은교회(박병수 담임목사)는 지난 22일 예수병원 발전을 기원하며 신충식 병원장에게 발전기금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

박병수 담임목사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예은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여, 교회와 병원이 치유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며 "예수병원의 발전에 더 나아가 인술에 영향을 미치고자 예수병원을 먼저 찾았다"고 밝혔다.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병원을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지역사회를 먼저 돌아보시고 예수병원에 먼저 사랑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결같은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후원금은 예수병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샘노인복지센터, 동서학동에 삼계탕 전달

노인요양시설인 '새샘노인복지센터(원장 김용진)'는 지난 22일 완산구 동서학동 주민센터(동장 서성곤)에 관내 독거노인과 통합돌봄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 삼계탕 50인분을 전달했다.

새샘노인복지센터 김용진 원장은 "여름철 무더위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이 영양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변치 않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살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삼계탕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김윤상 기자

LX전북본부, 진안군사회복지협에 누리첵 기부금 전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화)는 22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을 통해 진안군 소외계층에 누리첵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지난 6월 19일 진안군청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한 대상자 및 좋은이웃들 의뢰를 통해 선정된 2가정에 의료비 및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종화 본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 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나눔 문화 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남원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임명장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2일,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신규 의용소방대원 24명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 및 임명장을 수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입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임명 전 재난활동 봉사자의 자질함양과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남원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조직구성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교육 △의용소방대 복제 및 부착물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실시했으며, 신입의용소방대원 24명은 앞으로 각종 재난현장 보조활동과 화재예방활동,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백성기 서장은 소방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성찰협력수업 토크콘서트'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2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2022년 성찰협력수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매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열린다. 올해는 전주교대 교수와 전북지역 현장 수석교사, 도교육청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성찰협력수업 토크콘서트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교수-교사의 공동체 활성화 및 협업과 소통을 이끌어 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8개 분과별 주제를 선정해 공동교육과정 수업 나눔과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박병춘 총장은 "교실 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수와 교사가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수-교사 연계 수업 성찰과 공유를 통해 미래 세대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